

노 순 동
시사저널 기자

‘페미 오빠들’ 을 만나다

‘페미 오빠’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최근 만난 두 명의 페미 오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다. 바로 임상수 감독과 소설가 이만교씨다.

다들 알겠지만 영화 〈처녀들의 저녁식사〉로 데뷔했던 임상수 감독은 최근 〈바람난 가족〉과 함께 돌아왔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로 인상깊은 데뷔를 했던 소설가 이만교씨는 최근 단편 소설집 〈나쁜 여자, 착한 남자〉로 돌아왔다.

이들은 페미니즘 운동과 별 관련이 없고 게다가 본인들은 이 딱지를 달가와할지 의문이지만 내게는 이들 만큼 ‘페미 오빠’라는 어감에 딱 맞는 인물도 드물다.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남다른 감정 이입을 하고 있는 남성 작가들의 작품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먼저 임상수 감독. 〈바람난 가족〉은 열렬한 응원군 만큼이나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는 이도 많았던 화제작이다. 온 가족이 바람이 난다는 설정도 설정이려니와 그런 것쯤은 주제를 위한 설정일 뿐이라고 여기는 쿨한 이들에게도 불편한 코드 하나쯤은 숨겨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바람난 가족〉이 남자에게 관심이 더 많은 남성 영화라는 것이다. 남성이 그렇게 한심하게 그려지고, 그 댓가로 아내로부터 ‘아웃’ 당하는 열개로 부터 어떻게 그런 인상을 받을까?

감독을 만나 단도직입, ‘요즘 세간에 이 영화 남성용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물었더니 의외로 선선히

수긍을 하는 것이었다(그러면 안되느냐고 잠깐 발끈 하기는 했다). 〈바람난 가족〉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몹시 힘겨운, 까딱하다가는 몹시 후진 인간이 될 수 밖에 없는 남성의 후줄근한 자화상이라는 것이다. ‘가부장도 힘들고, 아닌 것도 힘들어.’ 임 감독의 메시지는 그것이었다. 물론 여성의 세상살이에 대한 그의 이해는 충분히 폭이 넓다. 옛날 세상에서 여성의 고통에 눈밝은 이가, 남성의 고통에 대해 말을 하겠다는 데 시비를 걸 이유는 없을 것 같았다.

소설가 이만교는 〈결혼은 미친 짓이다〉로 화려한 신고식을 했던 인물. 임큼하게 두 집 살림을 하는 여성-사실 이것은 많은 남성들이 의식의 균열없이 너무나 쉽게 해온 일이다-을 통해 이 시대 결혼의 현주소를 되물었던 그다. 단편집의 표제작 〈나쁜 여자, 착한 남자〉의 메시지도 역시 흥미롭다. 너무도 착한 그녀, 혹시 가해자는 아닐까? 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강요된 역할일지 모른다는 자의식없이 착하기만한 것에 대한 의심이다. 항체없는 순수함에 대한 염증인 셈이다. 같은 책에 실린 단편 ‘그녀, 번지 점프를 하러 가다’는 기혼 여성의 심리 묘사가 그보다 더 리얼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혹여 성차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이 페미 오빠들과의 만남을 권한다. 성차야 엄연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PPFK